

2. 전기 절약 캠페인을 위한 스티커를 제작하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전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함.

표현 : 전기용품을 화자로 설정하고 실전을 간접적으로 촉구함.

- ① 빈방마다 전등이 다 켜 있군요.
아무도 없는 방에 전등이 필요할까요?
- ② 수없이 여닫는 사람들이 있기에
냉동실 속의 저는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 ③ 온종일 찬바람 쏘기에 제가 지쳐가도
당신은 껌입을 옷만 더 찾으시는군요.
- ④ 제 몸을 뜨겁게 하여 옷의 주름을 펴듯이
당신의 뜨거운 열정이 세상의 주름을 펍니다.
- ⑤ 빈 교실에서 저 혼자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전기를 아낄 수 있도록 스위치를 꺼 주시겠습니까?

3. <보기>는 미술전을 관람하고 난 후 쓴 감상문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보 기> —

: ‘마티스전’을 다녀와서

미술 수행 평가를 위해 ‘마티스전’을 관람하러 ㉠ 오랫만에 외출하였다. 그동안의 지루한 장마가 그쳤다. ㉡ 검은 구름 사이로 덮여 있던 새파란 하늘이 손수건만 하게 나타났다. 발걸음도 경쾌하게 미술관을 향하였다. 미술관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 사람들이 많은 전시장을 돌아보며 그림을 관람하고 있었다.

마티스의 그림을 책에서만 보았지 이렇게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히 마티스 예술의 진수인 단순성과 강렬함이 극대화된 「춤」은 매우 인상적인 작품이었다. ㉣ 마티스의 그림을 보고 당시 비평가들은 혹평하였다고 한다. 푸른 하늘과 언덕이 극도로 단순화 되었으며, 서로 손을 맞잡고 돌아가는 다섯 명의 무희는 강렬한 생명력을 만들어 냈다. 이 그림은 러시아의 부호 시츠킨의 의뢰로 탄생한 걸작이라 한다. 「춤」이 너무나 마음에 든 시츠킨은 그것과 짝이 될 만한, 음악을 주제로 한 그림을 또 의뢰하였다. ㉤ 그리고 마티스는 「춤」과 같은 색, 같은 형태의 구성이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음악」을 그렸다고 한다. 이번 ‘마티스전’을 계기로 다른 작가의 작품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 ① 맞춤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을 ‘오랜만에’로 바꿔야겠군.
- ② 표현이 어색하므로 ㉡을 ‘덮여 있던 검은 구름 사이로 새파란 하늘이’로 바꾸면 자연스럽겠군.
- ③ 의미가 모호하므로 ㉢은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돌아보며 그림을 관람하고 있었다’로 바꿔야겠군.
- ④ 글의 흐름으로 보아 불필요한 문장이므로 ㉣은 삭제해야겠군.
- ⑤ 접속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을 ‘하지만’으로 바꾸면 좋겠군.

4. <보기>는 발음이 비슷하여 일상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말들을 조사한 것이다. 이를 참조하여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어휘를 고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바치다¹ :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
- 바치다² : 주접스러울 정도로 좋아하여 찾다.
- 받히다 : ‘받다’의 피동사 (*받다 : 머리카락 따위로 세차게 부딪치다.)
- 받치다¹ :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난다.
- 받치다² : 어떤 물건의 밑이나 안에 다른 물체를 대다.

- ① 설움에 받혀 울음을 터뜨렸다.(→받쳐)
- ② 그는 길을 건너다가 차에 받쳐 크게 다쳤다.(→받혀)
- ③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책에 책받침을 받치고 쓴다.(→받히고)
- ④ 이분을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을 받쳐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바쳐야)
- ⑤ 매일 그렇게 술을 받히더니 결국 간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했다.(→바치더니)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김진희와 이혈룡은 출세하면 서로 돕기로 맹세한다. 양가 아버지가 모두 죽은 후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하여 평양 감사가 되나, 이혈룡은 매우 궁핍한 처지가 된다. 이혈룡은 김진희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오히려 김진희는 이혈룡을 죽이려고 한다. 이혈룡은 기생 옥단춘에 의해 구출되고, 두 사람은 가연을 맺는다. 이후 과거에 급제한 이혈룡은 암행어사가 되나 걸인 행색으로 옥단춘을 찾아간다. 하지만 옥단춘은 이혈룡을 따뜻하게 맞아준다. 김진희가 연광정에서 벌인 잔치에 옥단춘이 불려나간다.

역졸들과 약속한 시각이 다가오자 이혈룡은 그 남루한 행색으로 성큼성큼 연광정 대상(臺上)으로 올라가니, 이때 당황한 나졸들이 와르르 달려들어 혈룡을 잡아서 층계 밑에 꿰려 놓으니, 김 감사가 대상에서 호통을 치니라.

“너 이놈 이혈룡이로구나. 네가 저번에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왔느냐? 이번에는 어디 견디어 보라!”
 “나도 전번에 너를 친구라고 신세를 지려고 하였으나, 나도 양반의 자식이라. 이놈 진희야, 들어보라. 머나먼 길에 너를 찾아 왔다가 영문에서 통기도 못하고 근근이 지내다가, 이 연광정에서 네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였으나, 너는 나를 미친놈이라고 대동강의 사공을 불러서 배에 태워 물 속에 던져서 죽이지 않았느냐. 내 물귀신 될 원혼이 오늘 또다시 네가 연광정에서 호유(豪遊)*하기에 다시 보려고 왔다.”

<중략>

김 감사가 사공들에게 호령하여,
 “이혈룡과 옥단춘이 두 연놈을 한 배에 싣고 나 보는 앞에서 대동강 깊은 물에서 던져 보리라!”
 사공들이 저희들 목숨 산 것만 다행으로 여기고 물러나자, 김 감사는 또 영을 내려서 북소리를 세 번 덩덩 울리니,
 “그 연놈을 빨리 함께 죽여라!”
 하니, 이때 아직 신분을 밝히지 않은 암행어사 이혈룡이 사공들에게 묶여서 배에 실려 오를 적에 탄식하고 하는 말이,
 “붕우유신 쓸데없고, 결의형제 쓸데없구나. 전에는 ㉠ 너와 내가 생사를 같이 하자고 태산처럼 맺었더니,

살리기는 고사하고 죄 없이 죽이기를 일삼으니 그럴 법이 어디 있나. 오륜(五倫)을 박대하면 양화(殃禍)가 자손에까지 미치리라.”

하고, ㉠ **대동강의 맑은 물을 바라보며 한탄을 계속하니라.**

“대동강 맑은 물아, 내가 너와 무슨 원수로, 한 번 죽기도 억울한데, 두 번이나 죽이려고 이 모양을 시키느냐. 정말로 죽게 되면 가련하고 원통하다.”

이때 옥단춘이 이혈룡의 손을 부여잡고 만경창과 바라보며 기절할 듯이,

“원통하고 가련하다. 무죄한 우리 목숨 천명을 못 다 살고 어복중(魚腹中)의 원혼 되니, 청천은 감동하사 무죄한 이 인생을 제발 살려 주소서.”

하고 하늘에 호소할 때, 물에 던지기를 재촉하는 북소리가 한 번 울리니, 옥단춘은 더욱 기가 막히더라.

[A] “애고 애고 이일을 어찌할까? 임아 임아 낭군님아, 어찌 하면 산단 말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죄 없으면 사느니라. 울지 말고 정신차려라.”

이때 북소리가 두 번 울리매, 춘이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임아 임아 서방님아, 이제는 꼭 죽었지 못살겠소. 살려주소. 살려주소. 무죄한 이 소첩을 제발 살려주소. 신명께 맹세하여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때 세 번째 북소리가 들렸으니, 사공들은 당황히 재촉하니라.

“어서 물에 들어가소. 일사라도 지체하면 우리 목숨 죽을 테니 어서 물로 들어가소.”

하고 성화같이 재촉하니 옥단춘이 넋을 잃고,

[B] “여보 사공님들 들어보소. 당신들도 사람이면 무죄한 이 인생을 왜 그리 죽이려 하오? 나만은 자결할 테니, 우리 낭군 살려주소.”

“아무리 야속해도 감사님 명령이 엄격하니, 살릴 묘책 없소이다. 어서 바빠 조처하소.”

옥단춘은 단념하고 두 눈을 꼭 감고 치마를 걷어 올려서 머리에 쓰고 이를 갈면서 벌벌 떨고,

“에구머니 나 죽는다!”

㉡ **한 마디 지르고 풍덩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이혈룡이 깜짝 놀라서 옥단춘의 손을 부여잡고 가로되,

“춘아 춘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고 잡아서 옆에 앉히고, 저쪽 연광정을 흘겨보면서,

“애들, 서리 역졸들아!”

하고, 부르는 소리 천지를 진동하니, 난데없는 역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며, 우레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암행어사 출도하옵시오!”

하는 ㉢ **소리가 연광정과 대동강을 뒤엎을 듯 하니라.**

<중략>

어사또의 호령이 내리자, 좌우의 나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번개같이 곤장 태장으로 두들겨 대며 가로되,

“애고애고, 어사또님 제발 살려 주십시오, 제가 죽을죄를 진 것은 저도 모를 귀신이 시켜서 그랬사오니, 죽고 사는 것은 어사또 처분이오니, 죽을죄 지은 놈이 무슨 말씀하오리까. 처분만 바라오며 잔명을 비웁니다.”

“네 이놈, 나쁜 아니라 죄 없는 옥단춘까지 나와 함께 죽이려 한 것은 무슨 까닭이나? 네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살려 둘 수 없다.”

어사또는 전에 자기를 배에 싣고 물에 넣으러 가던 사공들을 불러 놓고,

“너희들 이 놈을 배에 싣고 대동강 깊은 물에 던져 버려라.”

사공들이 어사또의 영을 듣고 김진회를 끌어다 배에 싣고 만경창과 물위로 떠나기 시작하니라. 이때 어사또가 어진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저 놈의 죄는 만 번 죽여도 부족하지만, 나로서 옛정을 생각하니 차마 죽일 수가 없구나.”

하고 나졸을 불러서 분부하니라.

“너희들 급히 배에 가서 그 양반을 물 속에 한참 넣었다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도루 건져서 배에 싣고 오너라.”

“네잇”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반적으로 기억은 부호화, 저장, 인출의 세 단계를 거친다고 본다. 이는 인간의 기억 체계를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중심으로 기억을 살펴보면, 정보는 저장되기 전에 기억 체계에 맞게 부호화되어야 한다. 이 부호화는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진법으로 바꾸어 입력하는 것과 같다. 저장 이후에는 정보를 인출하는 단계가 있다. 처리된 정보를 저장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정보를 사고 과정이나 다른 인지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인출 단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세 단계를 거치는 도중에 망각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나) 일상에서 어떤 대상을 기억할 때 그 대상 자체의 성질이 기억을 크게 좌우한다. 예를 들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휘 중 어떤 것은 기존 지식과 관련하여 기억에 **유리**하고 어떤 것은 **불리**하다. 이와 같이 어휘에 대한 기존 지식은 기억의 용이성을 크게 좌우한다. 어떤 실험에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실제 어휘가 아닌 음절자를 만들었다. 이를 무의미 음절자라 하는데 ‘TAK’, ‘찰’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대상을 학습시켜 그 **기억** 정도를 검토하여 **망각**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간이라는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망각은 시간에 따른 정보의 **상실**에서 비롯된다. 이는 기억의 ㉠ **저장 단계에 문제가 있는 망각**이다.

(다) 시간과 무관한 망각도 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망각된 기억을 **회복**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어떤 사람을 지나칠 때 그가 매우 친숙하지만 누구인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다가 영화를 보던 중 문득 기억해 낼 수 있다. 나중에 기억을 회복한 점을 보면, 그를 기억하지 못했던 당시에도 그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장 단계가 아니라 ㉡ **인출 단계에서 비롯된 망각**이다. 기억 속에서 항목들은 의미의 맥락에 따라 서로 관련되어 있어 그 맥락을 잡을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정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다.

(라) 한편 정보가 저장될 때 왜곡되는 망각도 있다. 법정에서 빚어지는 기억에 대한 시비가 그 예이다. **강력** 사건의 목격자는 사건 당시의 공포나 그 순간을 회피하려는 동기 등으로 범인의 얼굴을 보긴 했지만 제대로 부호화하여 저장하지 못해 그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처음의 부호화가 **빈약**하여 왜곡되는 경우를 ㉢ **부호화 단계에서 비롯되는 망각**이다.

(마) 이처럼 망각은 기억의 세 단계 모두에서 일어나고 각 단계에서 비롯되는 망각은 서로 다르다. 기억은 크게 음운 부호와 의미 부호로 정보를 저장한다. 이 두 부호 중에서 어느 부호로 기억되느냐에 따라 각 단계의 망각 양상은 달라진다. 부호화 단계에서 음운 부호는 발음 감각 그대로, 의미 부호는 기존 지식과 관련하여 정보를 부호화한다. 이때 의미 부호가 기존 지식의 맥락에 맞지 않는다면 쉽게 망각된다. 저장 단계에서 음운 부호는 발음 감각이 **단기**적으로만 보존되어 정보는 쉽게 잊게 된다. 하지만 의미 부호는 기존 지식에 체계화되어 쉽게 망각되지 않는다. 즉 저장 단계에서 음운 부호는 빨리 망각되고 의미 부호는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인출 단계에서 음운 부호는 발음 감각 그대로 쉽게 인출된다. 하지만 의미 부호는 의미의 맥락을 찾아야 하므로 단서가 없으면 쉽게 망각된다. 이렇게 의미 부호는 음운 부호보다 부호화 단계와 인출 단계에서 망각에 더 약하다. 기억의 단계와 관련하여 망각을 고려하면 기억을 훨씬 높일 수 있다.

9.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언급하면서 논의할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 실험 내용을 근거로 들어 저장 단계에서 비롯된 망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다) : 일상의 경험을 들어 인출 단계에서 비롯된 망각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 구체적 사례를 들어 부호화 단계에서 비롯된 망각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 기억의 단계에 따라 망각이 부호화되는 과정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10. <보기>의 사례를 ㉠~㉣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2점)

— <보 기> —

㉠ : 어떤 교통사고를 함께 목격한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 :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을 며칠 후 잊어버리는 경우
 ㉢ : 친구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입 안에서 맴도는 경우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11. (마)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독자가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단어를 암기하는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면 먼저 학습한 단어와 마지막에 학습한 단어의 기억 정도가 높았고 중간에 학습한 단어의 기억 정도가 낮았다. 이것은 중간에 학습한 단어보다 처음 학습한 단어를 더 망각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 ① 학습한 단어의 기억 정도에는 음운 부호와 의미 부호의 차이도 영향을 주겠군.
- ② 중간에 학습한 단어보다 처음과 마지막에 학습한 단어가 기존 지식과의 관련성이 높을 수도 있어.
- ③ 중간에 학습한 단어의 인출을 높이려면 그 단어와 관련된 맥락을 잡을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겠군.
- ④ 의미 부호보다 음운 부호가 저장 단계에서 망각이 잘 이루어져서 중간에 학습한 단어의 기억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⑤ 시간적 경과가 있었음에도 처음에 학습한 단어가 더 많이 기억되는 것은 기존 지식에 체계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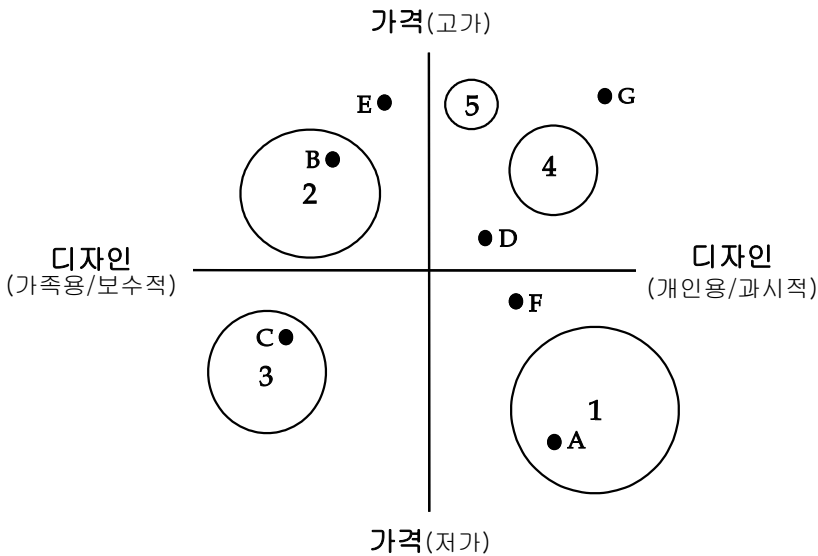
12. 문맥을 고려할 때, 위 글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 관계가 이질적인 것은? (2점)

- ① 유리 - 불리
- ② 기억 - 망각
- ③ 상실 - 회복
- ④ 강력 - 빈약
- ⑤ 단기 - 장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마케터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어떤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구매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집단을 적당한 방법으로 분류하는 ‘시장 세분화(Segmenting)’이고, 둘째는 그 세분화된 시장 가운데 가장 적절한 시장을 선택하는 ‘목표 시장 선정(Targeting)’이며, 셋째는 목표 시장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포지셔닝(Positioning)’이다. 포지셔닝은 마케팅의 여러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중에서 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 세 가지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STP 전략 수립’이라고 한다.

마케팅에서 STP 전략 수립에 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은 지각도이다. 지각도는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브랜드가 현재 소비자의 머릿속에 어떻게 지각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어떤 특성의 브랜드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런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등 마케팅 전략 수립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 지도가 있으면 훨씬 쉽듯이 마케터는 지각도를 활용하여 현재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 A~G : ‘갑’ 회사의 자동차 브랜드

㉠ 왼쪽 지각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지각도 작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세 종류의 정보가 필요하다. 첫 번째 정보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속성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선택할 때에 가장 중시하는 것을 가격과 디자인이라고 하자. 이때 이 두 가지 속성은 지각도의 축이 된다.

두 번째 정보는 소비자 각자가 추구하는 각 속성의 이상적 수준이다. 이것은 소비자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가격이 싼 경제적인 차를 원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고가의 품위 있는 차를 원한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 중

심적이어서 보수적인 스타일을 원한다. 이와 같은 이상적 수준들의 위치를 그림에서처럼 몇 개의 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원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를 이상적이라 생각하는가를 의미한다.

세 번째 정보는 소비자들의 기존 브랜드에 대한 인식 또는 이미지이다. 이것은 지각도상의 점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C는 경제적이고 가족중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G는 고급 스포츠 자동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목표 시장을 선정할 때 유용하다. 이상적인 목표 시장은 규모가 커야 하고 경쟁이 약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 상충된 요건을 겸비한 시장은 찾기 힘들다. 그리고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규모는 1번과 2번이 가장 크지만 인근 브랜드들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어떤 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마케팅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으나 지각도는 시장 상황을 도식화하여 보여 줌으로써 새로운 시장 진입을 위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마케팅 기법이라 하겠다.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수준에 의하여 나뉜다.
- ② 포지셔닝은 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 ③ 목표 시장 선정에서 규모가 크고 경쟁이 약한 시장을 찾기는 힘들다.
- ④ 기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목표 시장을 선정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된다.
- ⑤ 마케팅 전략 수립에 중요한 요소들을 도식화한 것을 STP 전략 수립이라 한다.

14. 위 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3점)

- ① STP 전략 수립에 지각도는 어떠한 유용성이 있는가?
- ② 지각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③ 지각도는 기존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④ 마케팅 전략 수립에 응용할 수 있는 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⑤ 새로운 시장 진입에 마케터가 고려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5. 위 글을 읽은 독자가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F 자동차는 A 자동차와 경쟁을 하지 않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겠군.
- ② 과시적 디자인에 저가 자동차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1번 시장의 규모가 큰 것이군.
- ③ B 자동차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은 E 자동차가 가격을 낮추면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군.
- ④ D 자동차는 가격을 올리더라도 과시적 디자인으로 개선하면 4번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겠군.
- ⑤ 3번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은 가격이 저렴한 보수적 디자인의 가족용 자동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군.

16. 밑줄 친 단어 중, ㉡과 의미가 이질적인 것은? (2점)

- ① 그들의 주장은 서로 배치(背馳)된다.
- ② 그는 아내와 의견이 상반(相反)되었다.
- ③ 이 사실은 저 사실과 배반(背反)하는 관계이다.
- ④ 지금 상황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顛倒)되어 있다.
- ⑤ 이 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모순(矛盾)을 안고 있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명경(明鏡)에 띄 끼거던 갑주고 닷글 줄
아희 어른 업시 다 밋쳐 알건마는
갑업시 닷글 명덕(明德)을 닷글 줄을 모르는다.

성의관(誠意館) 도라드러 팔덕문(八德門) 바라보니
크나큰 혼 ㉠ 길이 넓고도 곳다마는
엇지타 온종일 행인이 오도가도 아닌 게오.

구인산(九仞山) 긴 솔 베혀 제세주(濟世舟)를 무어 너야
길 닐근* 행인을 다 건너려 헛였더니
사공도 무상(無狀)하야* 모강두(暮江頭)에* 버젓나다.

- 박인로, 「자경가(自警歌)」

* 길 닐근 : 길 잃은

* 무상(無狀)하야 : 변변치 못하여

* 모강두(暮江頭)에 : 저물어 가는 강가에

(나)

조용함과 서두름이 비록 길은 다르나
활동에 휴식에 다 적절히 맞네.
홀로 나는 유배를 당하여도
외물(外物)에 거리낌이 없는지라.
행동을 엮매여도 몸은 되레 편하고
명예는 손상돼도 도(道)는 더욱 곧네.
지팡이 가죽신으로 그윽한 곳 찾고
시서(詩書)에 애오라지 정을 붙이네.
얻고 잃은 것을 어찌 다시 말하랴
세상 운수는 절로 순환하니,
세상살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서
초연히 남은 생애를 보내리라.

靜躁雖異途
動息皆有營
獨我遭竄逐
而無外累嬰
跡拘身反逸
名毀道彌貞
杖屨或尋幽
詩書聊寓情
得喪那復云
世運自回榮
偃仰從舒放
超然送餘生

- 신희, 「감사(感事)」

(다)

무릇 사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물건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욱 많게 되며, 그것을 얻기도 더욱 힘들게 된다. 비옥한 전답과 높은 집, 길다란 인끈*과 포근한 갓옷*, 아리따운 여자와 좋은 말 같은 것은 평생토록 얻으려고 애쓰지만, 어떤 사람은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한다. 그것을 얻을 때는 마치 사나운 새와 짐승이 먹이를 움켜잡고서 사방을 둘러보는 것과 같으며, 그것을 얻지 못할 때는 마치 궁한 귀신이 슬퍼 울부짖는 것과 같으니 또한 가련하지 않은가.

무릇 천하 만물의 아름다움을 따져보아도 하늘에 있는 물건의 아름다움만은 못하다. 그러나 해는 너무

뜨겁고, 별은 너무 희미하며, 구름과 안개는 너무 쉽게 없어지니,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점에서는 모두가 달만 못한다.

만약 하늘과 땅 사이에 예로부터 달이 없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달을 얻게 되었다면, 그가 달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만족해하여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어찌 야광주(夜光珠)와 수극벽(垂棘璧)*을 가진 것쯤에 비교가 되겠는가. 다만 달이 예로부터 하늘에 있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얻었으므로, 본체만체하며 버려두고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다. 슬프다. 내가 참으로 그것을 갖는다면 이는 내가 얻은 것이다. 그 예로부터 존재하여 모든 사람이 얻었던 것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오로지 사사로운 욕심과 혼자만이 차지하려는 마음을 애써 버려야 할 것이다.

— 정약용, 「득월당기(得月堂記)」

- * 인끈 : 병권(兵權)을 가진 무관이 발병부(發兵符) 주머니를 매어 차던, 길고 넓직한 끈
- * 갓옷 : 짐승의 털가죽으로 안을 댄 옷
- * 수극벽(垂棘璧) : 중국 수극땅에서 생산되는 큰 구슬

1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 (나)의 화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② (가), (다)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피하고자 한다.
- ③ (나), (다)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화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드러나 있다.

18. 밑줄 친 시어 중, ㉠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 ①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보네
고인을 못 봐도 가던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고 - 이황
- ② 길 위에 두 돌부처 벗고 굽고 마주 서서
바람 비 눈 서리를 맞도록 맞을망정
인간의 이별을 모르니 그를 부러워하노라 - 정철
- ③ 설악산 가는 길에 개골산 중을 만나
중에게 묻는 말이 풍악(楓岳)이 어떻더냐
이 사이 연(連)하여 서리 치니 때 맞았다 하더라 - 조명리
- ④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떠다니니
오색 구름 깊은 곳의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검불 같아서 갈 길 몰라 하노라 - 이정환
- ⑤ 전원엔 남은 흥을 전나귀에 모두 싣고
계산(溪山) 익은 길로 흥치며 돌아와서
아이야 금서(琴書)를 다스려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 김천택

1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신흙의 「감사(感事)」는 그가 53 되던 해 춘천 유배지에서 지은 작품이다. 유배 생활 속에서 외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초연한 자세로 살아가려 하는 화자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화자는 힘든 유배 생활조차도 순리에 따라 자연을 즐기며 사는 전원생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외물에 거리낌이 없는지라’는 유배 생활에 초연한 화자의 태도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② ‘행동을 얹매어도’와 ‘명예는 손상돼도’는 유배 생활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그윽한 곳 찾고’는 자연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화자의 삶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얼고 잃은 것을 어찌 다시 말하랴’는 외적 상황에 얹매이지 않는 화자의 마음가짐을 말한 것이겠군.
- ⑤ ‘세상 운수는 절로 순환하나니’는 삶에 대한 무상감을 자연의 순환에 빗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20. (다)를 [A]와 같이 정리할 때, [B]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		[B]
사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은 사람들이 다 같이 갖고 싶어 한다.	→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①
↓		
물건이 아름다울수록 얻기 힘든데,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가련하다.	→	세태에 대해 언급하며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
↓		
천하 만물 중에서도 하늘에 있는 물건이 가장 아름답다.	→	아름답다고 여기는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③
↓		
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는 달이 으뜸이다.	→	대상 간의 비교를 통해 중심 소재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④
↓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달을 혼한 것으로 여겨 만족해하지 않는다.	→	사람들의 한계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⑤
↓		
참으로 소유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한다.	→	참된 소유의 의미를 밝히며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군대에 간 아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어린 시절의 경험을 편지에 쓰기 시작한다.

(가) 먼지 나는 길, 공장의 담, 까마중 열매 다음에 생각나는 건 땅에 반쯤 묻혀있던 노깡*들이야. 사택 앞의 쓸쓸한 가로를 따라서 가죽나무가 서 있고, 나뭇가지에는 하늘소벌레가 살았고, 벽돌벽의 어지러운 선전문 자국들, 창고의 탄환 흔적, 그리고 인가 끝에 상두도가 있었으, 실개천을 가로지르며 노깡들이 엇갈려 길게 누워 있었지. 노깡 속엔 우리가 그 무렵에 눈이 시뻘개서 찾아다니던 총알이 많이 나오곤 했었다. 총알을 찾으러 캄캄한 노깡 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기절했던 걸 어머니에게서 아마 들었을 거야. 애들이 그 속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며 전혀 접근을 꺼려하길래 어느 날 나 혼자 들어갔지. 안은 아주 비좁구 캄캄했는데 물이 질퍽하게 괴어 있더구나. 손으로 더듬으며 중간까지 가보니까 예상대로 기관포 탄환이 많이 있더랬어. 나는 아이들의 찬탄과 선망을 독차지할 일을 생각하고 온통 가슴이 떨렸어. 탄창 사슬에 끼인 게 한 줄이나 되더라. 나는 정신없이 파구 또 팠지. 한참 동안을 파는데 꺼림직한 기분이 들구 뭔가 손가락에 걸려 나오는 거야. 나뭇조각인 줄 알았어. 돌보다는 가볍구 나무보단 좀 듬직하단 말이야. 그래 눈앞에 바짝 갖다 대구 들여다보니까 뺨다귀야. 둥그런 관절두 달려 있는 진짜 뺨다귀 말이지. ㉠ 이 크……. 나는 그게 날 잡구 늘어지는 기분이더라. 양쪽 입구를 보니까 꼭 관솔 빠진 구멍만큼 보이는 거야. 소릴 지르다가 뺨드러졌어. 근처 실개천서 빨래하던 아줌마가 나를 끌어내줬단다. 어머니가 야단쳤어.

“너 그런 데 들어가면 귀신이 잡아먹는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어린애들이 그런 일투 호되게 놀라게 되면 잠잘 때 악몽을 꾸어서 식은땀을 흘리며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 내가 몸이 불편할 때 꿈을 꾸면 말이야, 언제나 그 노깡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어느 때는 그게 우리 영단 집의 시멘트 굴뚝 속이 되고, 피뢰침 달린 유리공장의 벽돌도가니 안이 되고, 시궁쥐가 많이 사는 공중목욕탕의 하수도 속이 되는 거야. 끝은 언제나 비슷하지. 양쪽 입구가 무너져, 해골바가지나 뺨다귀 손이 쑥 솟아올라서 내 머릿털이나 발목을 말야 팍 잡구 안 놓는 거야. 상두도가집 아이가 그 자리에 찾아가서 침을 세 번 뱉고 왼발로 세 번 구르면 된다고 그대루 했는데두 여영 무서운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

내가 일단 자기의 공포에 굴복하고 승복하게 되자, 노깡 속에서의 기억은 상상을 악화시켜서 나를 형편 없는 겁쟁이루 만들고 말았다. ㉢ 그런데 어떤 아름다운 분이 나타나 나를 훨씬 성숙한 아이로 키워줬지. 눈빛처럼 흰 여학생 칼라 뒤로 얇전히 빗어 묶은 머리를 길게 땀아 늘였고, 목소리가 노래하는 듯 고운 분이었어.

[중간 줄거리] 반장이 된 영래는 담임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 자기 마음대로 학급 동료들을 부린다. ‘나’는 이런 부당한 상황에 거부감을 느끼나 영래를 두려워하고, 그런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낀다. 이때 아름다운 소녀 같은 교생선생님이 오시게 되고, 교생선생님을 좋아하게 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용기를 얻게 된다.

(나) 그러나 자치회 때의 일로 영래와 종하 은수 그 애들은 선생님을 점점 미워하게 되었고, 자기네와 별로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소녀라고 놀려보려 했던 것이다. 그 애들은 병아리 선생님에 관한 음탕한 욕지거리를 지껄이거나 그이가 돌아서서 칠판에 글씨를 쓸 때 일어나 쑥떡을 먹이며 이상스런 몸짓을 하는 거였다. 나는 이 공공연한 모독에 의한 아이들의 수치심이 점차로 깊이 만연되어가고 있었던 상태를 전혀 느끼지도 못했었다. 어느 산수시간에 뒷자리 아이로부터 내게까지 작게 접은 종이조각이 건네져 왔으며, 펴보고 나서 나는 드디어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종이조각에는 “본 다음에 앞으로 돌릴 것. 임중하.”라고 써어 있고 밑에다 그이에 관한 욕설에 곁들여 변소에서조차 간혹 볼 수 있는 추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림을 책갈피에 끼워 넣고 시간이 끝나기를 애가 달아 기다렸다. ㉣ 그동안 나

는 별의별 무서운 공상에 시달렸다. 나는 언어터진다. 머리가 깨어져 다 죽게 된다. 그이가 나를 업고 간다. 몇 날 몇 달을 끝없이 간다.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뒤에서 종하가 대견한 짓이라도 해냈다는 듯이

㉠ “애들아, 그 쪽지 어디까지 왔는지 이쪽으루 다시 돌려라.”

하며 떠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겁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했다.

㉡ “내가 가졌다 왜. 정말 너 이따위 장난만 하거나?”

종하와 은수가 얼굴을 마주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낄낄 웃어댔다.

“그게 니 깔치니?” / “구경했으면 고맙다구 그럴 게지, 이 새끼가…….”

나도 지지 않고 말했다.

“너희들 사과 안 하면 그냥 안 둔다.”

그에게로 가서 종이조각을 내밀어 주었다.

“사과해, 너는 선생님을 욕보인 나쁜 놈이다.” / ㉢ “그래 병아리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하고 석환이가 잇달아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 이걸 네 손으로 찢어버려.” / ㉣ “이 새끼가…… 맞아 볼래?”

종하가 내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다가 바닥에 쓰러뜨렸다. 은수와 영래가

“밟아버려, 밟아.”

의치는 소리도 들렸다. 아이들이 뒤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제각기 떠들었다.

“너희들이 잘못이다,” / “우리는 병아리 선생님을 좋아한다.”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야.”

기가 죽어지내던 장판석이라도 종하를 내게서 떼어 밀치면서 말했다.

“애들 때리면 재미적다.”

은수와 종하는 아직도 영래의 행동을 기다리며 씨근거렸다. 아이들이 사방에서 한마디씩 했다.

“학급비를 거둬다 우리한테 알리지두 않고 맘대로 쓴 건 잘못이다.”

“요전에 동열이를 때린 것두 잘못이라구 생각한다.”

“한 번도 자치회에서 물어보지도 았구 혼자 맘대로 한 건 더욱 잘못이다.”

영래는 자기가 반 아이들에게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이 셋노랑게 질려있었다

“너희들 반장에게…… 이러기냐?” / “너는 반장 자격이 없어.” / “그만뒤라.”

나는 종하에게 종이쪽지를 내밀었다. 종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듯이 영래를 바라보자 그 애는 의외로 나약해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 “찢어, 입마.”

종하가 그걸 찢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내게 사과 안 할 테냐?”

아이들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래 사과하란 말야, 짜식들아.” / “사과 안 하면 물매를 놓아서 쫓아내라.”

종하가 아주 비굴하게 들릴까말까한 음성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우리는 모두가 그 애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풀이 죽은 걸 보고서 어리둥절해질 지경이었다. ㉥ 나의 들끓던 수치감은 그때에 짝 몰려 있던 오줌이 방광을 비집고 쏟아져 나올 때처럼 외부로 터져 나갔고, 가벼운 몸서리를 흠칫 느꼈던 것이었다.

—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

* 노관[土管] : 시멘트나 흙을 구워서 만든 둥글고 큰 관. 우물이나 굴뚝 또는 배수로 따위에 쓴다.

2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소재를 주체의 형상화에 활용하고 있다.
- ②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③ 섬세한 묘사를 통해 작중 상황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과거 경험의 회상을 통해 사건 당시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22.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2점)

- ① (나)의 사건은 (가)의 사건보다 나중에 일어난 것이다.
- ② (가)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듯이 서술하고 있다.
- ③ (나)의 ‘그 애들’은 ‘나’에게 적대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 ④ (가)는 문제 상황을, (나)는 문제 상황의 원인을 서술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내적 갈등을, (나)에서는 외적 갈등을 서술하고 있다.

2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기세가 살아서 아이들을 부리는 고압적인 어조로 말한 것이다.
- ② ㉡은 선생님을 모욕하는 상대의 행동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 ③ ㉢은 ‘나’의 행위에 용기를 얻어 ‘나’의 주장에 동의함을 나타낸 것이다.
- ④ ㉣은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협박하는 말이다.
- ⑤ ㉤은 상대방의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이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트라우마(trauma)’는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인 충격이나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를 가리킨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감정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분노, 피해의식, 수치심을 잘 느끼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악몽을 꾸는 경향이 있다.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① ㉠의 경험 때문에 ‘나’에게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겠군.
- ② ㉡의 악몽은 트라우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의 ‘아름다운 분’은 ‘나’의 트라우마 극복을 도와준 인물이겠군.
- ④ ㉣에서 무서운 공상에 시달린 것은 불안정한 감정 상태에 해당하겠군.
- ⑤ ㉣은 ‘나’가 트라우마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겠군.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많은 사람들은 점자를 생각할 때, 일반 글자 모양을 그대로 양각화하여 촉각으로 감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점자는 일반 글자의 모양을 본뜬 것이 아니라 한 칸에 들어 있는 가로 2개, 세로 3개로 배열된 6개의 점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별도의 기호 체계이다. 이 6개의 점은 위치에 따라 왼쪽 위에서 아래로 각각 1점, 2점, 3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각각 4점, 5점, 6점으로 정하여 부르고 있다.

(나)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점자가 세계 공통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 칸이 6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6점식 점자 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 공통이다. 하지만 일반 글자가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기초하고 있듯이, 점자도 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문자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도 외국어를 공부하려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언어의 점자를 배워야 한다.

(다) 한글과 로마자를 기본으로 하는 언어들은 음소 단위로 점자가 규정되고 이것들을 조합하여 음절이나 단어를 형성하게 된다. 일본어 점자는 음절 단위로 점자가 규정되어 있고, 중국어 점자는 수만 개에 달하는 한자에 1:1로 점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발음되는 소리를 분석하여 그것을 점자로 표기하고 있다. 즉 한자는 표의문자인데 비해, 중국어 점자는 표음문자인 셈이다.

(라) 그렇다면 한글 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의 점칸은 6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점형의 수는 63가지이다. 한글 점자는 이 63가지의 점형을 한글의 기본 자모와 대응시키고, 그것들을 풀어쓰기 방식에 따라 순서대로 쓰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음용 점형은 첫소리 자음과 받침 자음 각각 14개씩 28개, 모음용 점형 21개, 숫자용 점형은 수를 표시하는 수표 1개를 포함하여 11개, 영문자용 점자는 대문자를 표시하는 점형 1개를 포함하여 27개가 있다. 아래의 표는 첫소리 자리에 쓰이는 기본 자음자 14개와 기본 모음자 10개를 제시한 것이다. 점의 명칭은 첫소리 ㄱ은 4점, ㄴ은 1-4점('일사점'이라고 읽는다.), ㄷ은 2-4점이다.

자음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ㅊ	ㅎ
첫소리 글자	⠠	⠠	⠠	⠠	⠠	⠠	⠠	(⠠)	⠠	⠠	⠠	⠠	⠠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

(마) 첫소리 ㅇ은 소릿값 없이 모양만 나타내는 것이어서 점자의 양을 줄이기 위해 표기하지 않고 생략한다. 그리고 첫소리 자음과 받침 자음을 별도의 점형으로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 '가고(ㄱㅏ ㄱㅓ)'와 '각오(ㄱㅏ ㄱㅓ)'와 같은 경우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소리 자음, 모음, 받침 자음에 해당하는 각각의 점자 기호를 익히고 그것을 조합해야 점자로 쓰인 한글 낱말이나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 프린스턴대의 진화생물학자인 존 타일러 보너 교수는 자신이 쓴 『크기의 과학』에서 “지구 역사상 유기체 크기의 상한선은 항상 열려 있고, 대부분의 생물은 몸집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라고 말한다. 거대동물의 큰 몸집은 과학자에게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 아직까지 확실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화의 방향성을 놓고 볼 때 몸집이 커지는 쪽이 당연하다는 것에는 대개의 관련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동물은 몸집이 커지면 유리한 점이 많다. 천적이 줄어들고, 다른 경쟁 상대에 비해 먹잇감을 얻기가 쉬워진다. 대형 초식동물이 늘면 포식자들도 효과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몸집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마련이다.

동물의 몸집이 커지는 쪽으로 진화하는 데는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한다. 예를 들어 차가운 기후에서 포유류와 같은 온혈동물의 몸집은 더 커져야 한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몸집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양서류나 파충류와 같은 냉혈동물은 따뜻한 기후에서 몸집이 더 커진다. 몸집이 커지면 외부 열을 차단하기에 그만큼 유리하다. 대기 중 산소 농도가 크기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도 있다. 과학자들은 석탄기에 살던 바퀴벌레가 고양이[㉠]만 했던 까닭이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두 배 높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거대 곤충들은 다리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관과 힘줄, 신경 다발이 발달했는데, 이들 기관이 산소를 몸 곳곳에 충분히 공급하면서 몸집이 커졌다는 얘기다. 서식지 면적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학자들은 북극해 랭스 섬에 살던 매머드의 크기가 유라시아 대륙에 살던 매머드의 65%에 불과했던 것은 서식지의 면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덩치가 큰 동물일수록 먹잇감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넓은 면적의 서식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더라도 동물의 몸집이 무한정 커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생물의 크기는 세포 수가 결정한다. 세포의 자체 크기나 모양보다는 얼마나 많이 분열하느냐에 따라 몸집이 결정된다. 쥐와 코끼리가 세포 종류에서 차이가 없지만 몸집이 다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몸의 크기는 또 성장호르몬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진다. 성장호르몬이 세포의 분열을 계속 명령해서 세포의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면 덩치도 따라서 커진다. 그러나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만 한다고 해서 무한정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생물 스스로의 조절 능력을 벗어난 세포 분열은 일어나지 않는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거인국 사람을 보자. 키가 정상인의 2배만 돼도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면 그 충격은 30배나 된다. 또 땀박질은 물론 제자리에서 폴짝 뛰는 것도 어렵게 된다. 뛰었다 떨어지는 순간 몸무게 때문에 다리뼈가 박살날 수도 있다. 과학자들은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다리는 물리적인 구조상 거의 코끼리 다리 수준으로 굵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뼈뿐만 아니라 근육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신체 각 부분의 크기 비율이 달라져야 한다. 코끼리보다 몸무게가 14배나 더 무거운 대왕고래는 부력 덕분에 수중에서는 살 수 있지만 만약 육지에 올라온다면 중력의 영향으로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 동물은 몸집이 커지면 그에 맞게 신체 구조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2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견해를 근거로 거대 동물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동물의 몸집이 커지는 요인을 밝힌 후 거대화의 한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③ 환경적 요인이 거대 동물의 출현에 미친 영향을 상반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④ 진화의 과정에서 동물의 몸집이 커지는 이유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있다.
- ⑤ 거대 동물의 진화 방향을 결정하는 원인을 분석한 후 중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30.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지역의 개구리보다 온대 지역의 개구리가 몸집이 커야 생존에 유리하겠군.
- ② 대왕 고래가 육지로 올라온다면 중력의 영향으로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 어렵겠군.
- ③ 코끼리 크기의 얼룩말이 늘어난다면 사자도 몸집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해야겠군.
- ④ 같은 종의 초식동물이라면 면적이 좁은 섬보다 넓은 육지에 사는 것이 더 커지겠군.
- ⑤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면 바퀴벌레의 몸집이 더 작아질 수 있겠군.

31.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몸집이 큰 생명체는 작은 생명체보다 대사율이 떨어진다. 코끼리가 한 번 먹는 식사량은 쥐 한 마리가 한 끼 먹는 양보다 절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코끼리는 자기 몸무게만큼의 쥐들이 먹는 음식물보다 훨씬 적은 양을 먹어도 살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유전자 공학을 이용하여 육우의 몸집을 키우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머지않아 거대육우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① ‘거대육우’는 늘어난 몸무게 때문에 일반소와는 신체 구조가 달라지겠군.
- ② 몸집이 커진 ‘거대육우’를 기르는 농가는 사료비용의 증가로 적자를 보겠군.
- ③ 분열한 세포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거대육우’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될 것 같아.
- ④ 세포 수가 증가하면 ‘거대육우’의 무게가 증가하니 초지에 방목해서 길러야 하겠군.
- ⑤ 몸집이 커진 ‘거대육우’는 세포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될 테니 일반소와 고기맛이 다르겠군.

32. <보기>에서 ㉠, ㉡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을 각각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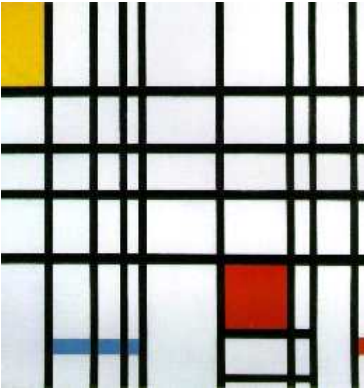
— <보 기> —

가. 이__ 물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나. 태풍의 영향으로 짐체만 한 파도가 몰려온다.
 다. 하루 종일 잠만 잤더니 한참동안 머리가 멍했다.
 라. 열 장의 복권 중에서 하나만 당첨되어도 바랄 것이 없다.

- | <u>㉠</u> | <u>㉡</u> |
|----------|----------|
| ① 가 | 나 |
| ② 가 | 라 |
| ③ 나 | 다 |
| ④ 다 | 라 |
| ⑤ 라 | 가 |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일 표현주의자들이 강렬한 표현을 추구하고 있을 때, 몬드리안은 네덜란드의 모더니즘을 이끌어 나가며 새로운 미술 양식을 만들어냈다. 젊은 시절 다양한 예술 형태와 양식을 시도했던 그는 1917년 『데 스틸』이라는 종합예술전문지를 발간한 데오 반 도스버그와 함께 활동했다. ‘데 스틸’은 ‘양식’이라는 의미로, 건축가, 디자이너, 화가, 이론가들이 모여 가장 완벽하고 모든 이치에 통달한, 거스름이 없는, 가장 보편적인, 그러면서도 새로운 추상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은 야심 찬 운동이었다.



<‘적황청의 구성’(1921)>

① 미술이 수학적인 것이 되기를 바랐던 몬드리안은 자연의 형상을 소거하고 새로운 추상으로 나아갔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명한 ‘적황청의 구성’이다. 3가지 기본 색과 기본 톤으로 색을 제한한 것도 본질적인 요소를 제외한 불필요한 것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는 오로지 빨강, 노랑, 파랑 같은 삼원색과 흰색, 검은색, 회색 같은 무채색만을 조심스럽게 계산하여 배치하면서, ‘불평등한 균형, 그러나 평온한 대칭’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그의 격자형 그림들은 서로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각각은 정확히 계산된 완전히 다른 그림이다. 또한 그는 수직선과 수평선이 일종의 음(陰)과 양(陽)처럼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라고 보았다. 몬드리안은 수직선이 생기를, 수평선이 평온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고, 이 두 선들을 서로 적절한 각도에서 교차시키면 ‘역동적인 평온함’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몬드리안은 여러 가지 요소를 혼합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가장 주된 색과 선만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지엽적이거나 특수해서 장르 간 교환이 불가능한 모든 이미지를 제거한, 어떠한 분야와 대상에도 적용 가능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자 했다.

몬드리안의 예술이 혁명적으로 새롭다는 것은 그가 최초로 비대칭적인 것 속에서 균형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그림으로 실현시켰다는 점이다. 이전의 미술가들은 균형이란 항상 중심축을 둘러싸고 대칭되게 배치될 때, 다시 말해 측면부가 중심부에 종속되어 중심부가 측면부보다 우세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칭은 하나의 계층적 질서로서 복종과 지배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 여겨졌다. 하지만 몬드리안은 대칭 개념의 오랜 속박에서 벗어나, 대등 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데서 조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도 그것을 완성했다.

몬드리안은 평생 지독하리만큼 절제하는 생활을 했다. 자신이 완성한 완전한 수직 수평선과 삼원색의 조화 안에서만 작업을 해나갔다. 그가 사선을 비롯한 다양하고 화려한 색과 표면 질감과 같은 붓 터치에 눈을 돌리지 않았던 것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것에의 애정,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제거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긍정적인 절제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점)

- ①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없는 색상을 배제하려 하였다.
- ② 몬드리안은 어떤 분야와 대상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미지를 구현하려 하였다.
- ③ 몬드리안은 대등 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데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④ 몬드리안은 구성 요소의 복종과 지배 관계를 통해 대칭적 질서를 구현하려 하였다.
- ⑤ 몬드리안은 수직선과 수평선의 적절한 교차를 통해서 역동성과 평온함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갯말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향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五臟)을 씻어 내린다.
 노신이어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 **등불이 나에게 속삭여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나)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릿잎 몇 장 더 없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 벌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둑길 너머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 짙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짚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다)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
 나무를 하다보면 자주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찢기고 긁혀
 ㉠ 돌아오는 길이 절뚝거린다 하루해가 저문다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군

이것들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
 ㉢ 아궁이 속에서 어떤 것 더 활활 타오르며
 거품을 무는 것이 있다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빛나가던 웅이 박힌 나무다
 그건 상처다 상처 받은 나무
 이승의 여기저기에 등뼈를 꺾인
 그리하여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가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내 삶의 무거운 웅이들도 불길을 타고
 ㉣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긴다
 흰 재, 저 흰 재 부추밭에 뿌려야지
 흰 부추꽃이 피어나면 목숨이 환해질까
 흰 부추꽃 그 환한 환생

- 박남준, 「흰 부추꽃으로」

37.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 있다.
- ②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을 통해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다.
- ③ 수동적인 삶에 대해 반성하며 열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
- ④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로 인한 고뇌로 절망감에 빠져 있다.
- ⑤ 일상적 삶의 고통을 초월적 존재를 통해 해소하려 하고 있다.

38. (가)~(다)의 시어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 '상해 호마로 어느 뒷골목'과 (나)의 '수수밭'은 화자의 내면에 떠오른 공간이겠군.
- ② (가)의 '돌팔매'는 (다)의 '도끼질'과 달리 현실적 시련을 극복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등불'과 달리 (다)의 '옹이 박힌 나무'는 화자의 삶이 투영된 대상이겠군.
- ④ (나)의 '환해진다'와 (다)의 '환한 환생'은 화자가 지향한 바가 성취된 상태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몇 번 머리를 흔들고'와 달리 (다)의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는 삶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39. <보기>는 (나)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메모한 내용이라 가정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보 기> —



- ◆ 저물녘의 적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①
- ◆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한다. ②
- ◆ 삶의 고통을 암시하는 구절을 제시한다. ③
- ◆ 시적 안정감을 위해 수미상관의 구조로 전개한다. ④
- ◆ 밝음의 이미지와 어둠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⑤

40. ㉠과 유사한 발상의 표현을 (다)에서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